

**NS홈쇼핑 '연말 럭키 777' 프로모션**  
 NS홈쇼핑이 31일까지 '연말 럭키 777' 프로모션을 연다. 모바일 7% 할인 쿠폰에 모바일 7% 적립금을 더한다. 추가로 20만 원, 2개 이상 구매 시 7%의 추가적립금을 중복으로 제공한다. 15일까지 1차, 16~31일 2차로 나눠 차수별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물가에 움츠러든 연말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 혁신적인 생활용품으로 주목받는 한국P&G

# “고객의 일상을 편리하게...친환경 가치까지”

한국P&G가 기업 철학인 '혁신'을 내세운 생활용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치, 면도, 빨래 등 고객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랄비, 토탈 구강케어 칫솔 선택재생 플라스틱 활용한 제품 눈길 '브라운9' 면도기, 피부건조도 관리 P&G “소비자 위해 연구·혁신 거듭”

### ●치아 세정과 잇몸 관리를 한번에

먼저 구강 관리 전문 브랜드 오랄비는 치아와 잇몸을 한번에 케어하는 '아이콘 엑스 칫솔'을 선보였다. 토탈 구강 케어 솔루션을 자랑하는 고객 수요에 따라, 하나의 칫솔모로 치아 세정과 잇몸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더블 케어가 특징이다.

특히 개발한 4개의 모서리를 가진 X자 필라멘트 칫솔모가 치아 틈새에 남아 있는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칫솔 가장자리의 초미세모가 잇몸을 부드럽게 감싸 예민한 잇몸 자극을 최소화한다. 손잡이 부분을 고풍택 핸들로 제작해 편안한 그립감은 물론 정결한 유지도 가능하다.

또한 치아와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크로스 액션 ECO'도 내놓았다. 환경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예코 칫솔이다. 칫솔 손잡이의 약 80%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칫솔모는 식물성 성분인 피마자 오일이 함유된 천연모로 제작했다.

친환경성을 고려하면서도 기존 크로스 액션 라인의 우수한 세정력을 보장하며 제품력도 강화했다. 크로스 액션 기술이 담긴 빗살 모양의 칫솔모는 치아 구석은 물론 잘 닿지 않는 어금니 뒤쪽의 플라그까지 깔끔하게 제거해준다. 잇몸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케어할 수



한국P&G가 '혁신'을 내세운 생활용품 통해 고객 일상을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질레트랩스 with 딥 클렌징 바'를 고르고 있는 고객, 오랄비 아이콘 엑스 칫솔, 다우니 냄새 딥클린 세탁세제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한국P&G, 롯데마트

있도록 칫솔모의 끝은 둥글게 다듬었으며, 칫솔 헤드 뒷면에 홈이 있어 헤리너로도 활용 가능하다. 회사 측은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는 것에 착안했다”며 “회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의 대중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면도를 넘어 피부 관리까지

면도기 브랜드도 예외가 아니다. 전기면도기 브랜드 브라운은 하나의 기기로 면도와 피부 관리가 가능한 '브라운 시

리즈9 프로 스킨'을 출시했다. 기존 모델 대비 30% 얇고 35% 넓어진 프로 블레이드로 최상의 질삭력을 자랑하는 '시리즈9 프로'와 피부 관리용 액세서리인 '프로 케어 헤드'를 함께 담았다. 프로 케어 헤드에는 '스킨 인퓨전 기술'을 적용해 분당 1만 번의 미세 진동을 일으켜 보습제의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필요에 따라 헤드를 교체하며 면도 후 건조하고 예민해진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질레트도 각질 관리와 깔끔한 면도를



▲브라운 시리즈9 프로 스킨.

한번에 해결해 주는 '질레트랩스 with 딥 클렌징 바'를 선보였다. 피부에 쌓인 각질과 이물질이 깔끔한 면도를 방해한다는 점에 주목해 기존 면도기 헤드에 딥 클렌징 바를 적용했다. 딥 클렌징 바가 면도날이 닿기 전 피부에 남아있는 이물질과 각질을 제거해 한번의 면도만으로 쉽고 빠르게 깔끔한 얼굴을 완성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세탁세제 브랜드 다우니는 기술 혁신이 집약된 '냄새 딥클린 세탁세제'를 내놓았다. 빨래 후에도 남아 있는 원인 모를 끈끈한 냄새에 대한 소비자 불편에 착안해 근본적 원인인 냄새 얼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냄새 얼룩은 충분히 세탁되지 않은 섬유 속 오염물이 오랜 시간 축적돼 산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데,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 제거가 어렵다. 이에 향기로 냄새를 덮는 게 아니라 미세한 냄새 얼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포물라를 업그레이드했다. 회사 측은 “P&G는 180여 년 동안 소비자에게 더 나은 오늘을 선사하기 위해 연구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향후 품질과 혁신의 가치를 추구하며, 소비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질 주유소가 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난방의광장 주유소에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뉴스스

## 전국 품질주유소 70개로 늘어 정부, 업무개시명령 확대 검토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산업부, 피해 최소화 모색

화물연대 파업이 11일째(4일 기준) 이어지면서 정유업계의 공급 차질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74곳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60곳)보다 늘었다. 물량이 동난 주유소는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곳, 강원 10곳, 충남 9곳 등이다. 지난 2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시멘트 수송량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회복되고 있다. 국토부는 시멘트 운송사 201개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운송 거부 화물차주 791명의 명단을 확보해 우편송달,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운송개시명령을 전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일일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3%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멘트 수송량도 8만4000t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10만 5000t)의 80% 수준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정유업계의 피해는 커지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일 대한석유공사 서울지사와 천안저유소를 각각 찾아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천안저유소는 장탱크 9기, 총 21만 배럴의 저유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이곳에서는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모인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 운영을 통해 주요 거점별 입·출하와 주유소 재고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군 탱크로리 등 대체 수송 수단 투입 등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편,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유조차(탱크로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SPC 셰이크백, 24호점 부천점 개점



SPC 셰이크백이 2일 24호점인 부천점(사진)을 개점했다. 롯데백화점 중동점 1층에 313.72㎡, 109석 규모로 자리잡았다. 지역 슬

로건인 '판타지아 부천'에서 영감을 받아 일러스트레이터 메이리와 협업해 '색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선보였다. 도시에서 비밀의 숲을 발견하고 새로운 판타지의 세계로 물들이는 모습을 표현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쉐버거, 웨스택, 스모크백 등 기존 대표 메뉴 외에도 밀크티 베이스와 바삭한 토핑, 솔티드 카라멜 드립들이 올라간 '골든 티 타임'을 한정 시그니처 메뉴로 선보인다.

## 현대중공업그룹, 이웃사랑성금 20억 원 기탁

현대중공업그룹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서울시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전달하는 성금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나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서 올해 3월 강원,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 8월 중부지방 수해 복구를 위해 각각 10억 원과 5억 원 및 구호장비,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11월 이태원 사고 때는 심리치료,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성금 10억 원을 기탁한 바 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 “5년 연속 ‘마스크팩’ 1위”...엘앤피코스메틱, 올리브영 마케팅 강화

(올리브영 어워즈)

‘티트리 에센셜’, 탁월한 진정 효과 수상기념으로 어워즈 한정세트 출시 헤어제품 ‘트리셀’도 올영세일 참여

엘앤피코스메틱이 헬스&뷰티(H&B) 스토어 CJ올리브영에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뷰티 브랜드 메디힐의 경우, 베스트셀러인 ‘티트리 에센셜 마스크’가 ‘2022년 올리브영 어워즈’ 마스크팩 부문 1위로 선정됐다. 2018년부터 5년 연속 1위다. 이 제품은 편안하면서도 탁월한 진정 효과로 12년 연속 올리브영 누적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리뉴얼을 통해 티트리 함량을 2배 높이고 진정 효과를 보다 강화했다.



‘2022년 올리브영 어워즈’ 마스크팩 부문 1위에 선정된 메디힐의 ‘티트리 에센셜 마스크’(왼쪽)와 올영세일에 참여한 트리셀 제품군. 사진제공 | 엘앤피코스메틱

수상 기념으로 7일까지 열리는 올영세일에서 ‘티트리 에센셜 마스크 10+2매 어워즈 한정 기획세트’를 출시해 51% 할인한 9900원에 선보인다. 또

100매입에 리필용 100매가 추가로 제공되는 ‘티트리 트리플 패드 더블 기획’과 ‘마데카사사이드 흔적 패드 더블 기획’은 32% 할인가에 구매 가능하며, 메디

정정욱 기자